전주매일

▶▶ 매일 INDEX

4면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시범 운영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8월 4일 금요일 (음 6월 18일) 제332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韓 전북도-日 이시카와현 코로나 이후 대면교류 본격

이시카와현 지사·의장 등 대규모 방문단 전북 찾아
김관영 도지사-히로시 현지사, 실질적 교류방안 논의

일본 이시카와현지사를 비롯해 의장단 등 이시카와현의 대규모 방문단이 전북을 찾아 다각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사진 3면〉

특히 이번 방문단에는 별도의 청소년 교류단도 동행해 전북에서 가정체험(홈스테이) 프로그램과 비빔밥 만들기 등 전북문화 체험과 백제 유적지를 견학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양 지역 지사들과의 대화시간을 갖는 등 대면 문화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시카와현 하세 히로시 지사가 현의회 의장단과 언론사 등 20여명의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전북을 방문했다.

김관영 지사와 하세 히로시 현지사는 3일 도청 회의실에서 공식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교류 22주년째를 맞이하는 양 지역이 지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와 산업 분야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시카와현지사가 전북도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1년 교류 10주년 이후 12년 만이다.

하세 히로시 이시카와현지사는 양 지역간 교류 다각화에 대해 이야기 하며 "특히 도와 문화를 매개로한 교류를 우선 확대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올해 10월에서 11월까지 한달 동안 이시카와현에서 개최되는 일본 최대 문화 행사인 국민문화제에 전북도 도립국악단을 파견해 교류지역의 행사를 지원하고 전북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선보이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일본 방문단에는 15명 규모의 청소년 교류단이 함께 방문, 2박3일간의 가정체험(홈스테이)을 진행하고 양 지역 청소년들과 양 지사가 함께 하는 미니 토크자리를 도청 영상관에서 마련해, 양 국·양 지역의 미래세대들과 직접 질문과 답변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펼쳐졌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시카와현과 전북도는 지역적 특색, 산업 등 공통점이 많다. 앞으로 양 지역이 공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문화, 식품, 농업, 신소재 등의 분야를 산업과 연계시켜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이시카와현은 지난 2001년 9월 10일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뒤 공무원 상호 파견, 환경 협력포럼, 청소년 교류, 스포츠, 학교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함께 동행한 야케다 히로아키 이시카와현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장단도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등을 만나 중단된 양 지역의 교류 재개를 제안하고 전북도의회에서도 교류 재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교류 의제 발굴을 제안했다. /김재훈 기자

3일 잼버리 지역연계 프로그램으로 순창 '고추장 익는 마을'에서 열린 영외활동에 김관영 도지사가 스카우트들과 함께 떡볶이를 만들며 대한민국의 고추장 매콤함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이 전북의 맛'… 잼버리 대원들, 순창서 K푸드 체험

몽골·노르웨이·이탈리아·콜롬비아 등 10개 국가 대원들
전통 고추장 담그고, 발효 항아리 만들어 즐거운 시간 보내
시·군 지역연계 프로그램 일환… 김 지사, 관계자들 격려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해외 스카우트 대원들이 K푸드의 매운맛에 빠졌다.

3일 순창의 지역연계프로그램 활동장소 '고추장 익는 마을'에서는 오전, 오후 나뉘어 몽골, 노르웨이, 이탈리아, 콜롬비아 등 10개 국가 약 400여명의 대원들이 방문해 순창 고추장의 맛있는 매콤함을 경험했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함께했다.

이날 대원들은 전통 고추장 담그기, 즉석 떡볶이 만들기, 발효 항아리 만들기를 하며, 전북의 맛과 문화를 체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대원들은 각자만의 스타일로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시식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 참여 대원들은 "한국의 매운맛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다.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 먹으니,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라며 "잼버리가 끝난 후에 고국에 돌아가 한국의 맛을 전파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관영 지사는 "가장 한국적인 맛이 있는 곳 순창에서 K푸드를 접할 수 있게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잘 구성됐다"며 순창군청, 마을협동조합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지역연계 프로그램 종료일인 8월 10일까지 음식 체험이니 만큼 여름철 위생에 신경써서 안전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잼버리 개최를 기회로 전북의 문화가 세계로 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14개 시군 지역연계 프로그램 30개가 8월 2일부터 시작됐다. 지역연계 프로그램은 지자체 주도 운영 프로그램들로 주로 구성되며 전통문화체험, 역사탐방체험, 종교이해체험, 템플스테이, 미래사회체험 등의 분야로 나뉜다. 프로그램은 오는 10일까지 계속되며, 1일 약 6,000여명의 대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도지사, 12일까지 잼버리 현장 지키기로

김관영 도지사가 집무실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지로 옮겨 대원들과 함께 숙영하며 안전문제 등 상황관리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3일부터 오는 12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폐영하는 날까지 현장에서 대원들과 동고동락한다고 밝혔다.

도는 김 지사가 지난 2일 개영식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야영을 하며 각종 지원업무를 살펴본 뒤 폭염으로 온열환자가 속출하자 의료지원을 비롯해 대원들의 안전상황을 챙기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북의 국보·보물 산책길에서 만나다'

도,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획특별전
온라인 '방구석 보물산책' 등 프로그램 다채

전북도가 오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4개월간 전북의 국보·보물이 있는 현장과 온라인 등 다양한 장소에서 기획특별전 '전북의 국보·보물 산책'을 개최한다.

전북도는 올해 문화재 1,000건 시대를 열고,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로의 전환을 맞이한다. 이를 기념해 전북의 문화유산 가치를 조명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문화유산을 편안하게 만나볼 수 있는 도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밖으로 보물산책'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백제왕궁박물관, 원광대학교 박물관, 정읍시립박물관, 김제 금산사 성보박물관 등 6개의 박물관과 연계한 전시가 준비됐다.

박물관 스탬프 투어를 통해 매월 선착순으로 전북의 국보·보물 굿즈를 증정하고, 박물관이 아닌 국보·보물이 있는 현장의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편안하게 즐기는 전시 '방구석 보물산책'도 함께 준비됐다. 8월부터 12월까지 전북의 국보·보물 다큐 영상이 유튜브 채널 '전북의 국보·보물산책'에 순차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다.

숏츠 영상을 통해 전북의 국보와 보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낮과 밤의 테마영상으로 문화유산의 아름다운 영상미를 선보일 것이다.

또한 현장과 온라인 전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된 지식과 실력을 뽐내고, 가족과의 추억도 쌓는 '도전! 전북의 국보·보물 골든벨' 퀴즈대회도 열린다. 10월 중 백제왕궁 박물관 야외에서 진행되며, 특집방송으로 전주MBC와 유튜브에 송출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의 문화유산 가치를 드높이고, 전북도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방안에서 편하게, 밖으로 생생하게, 퀴즈로 즐겁게 전북의 문화유산을 만나는 전북의 국보·보물 산책에 도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여가부 "폭염 상황 따라 잼버리 프로그램 탄력 운영"

의료 인력 추가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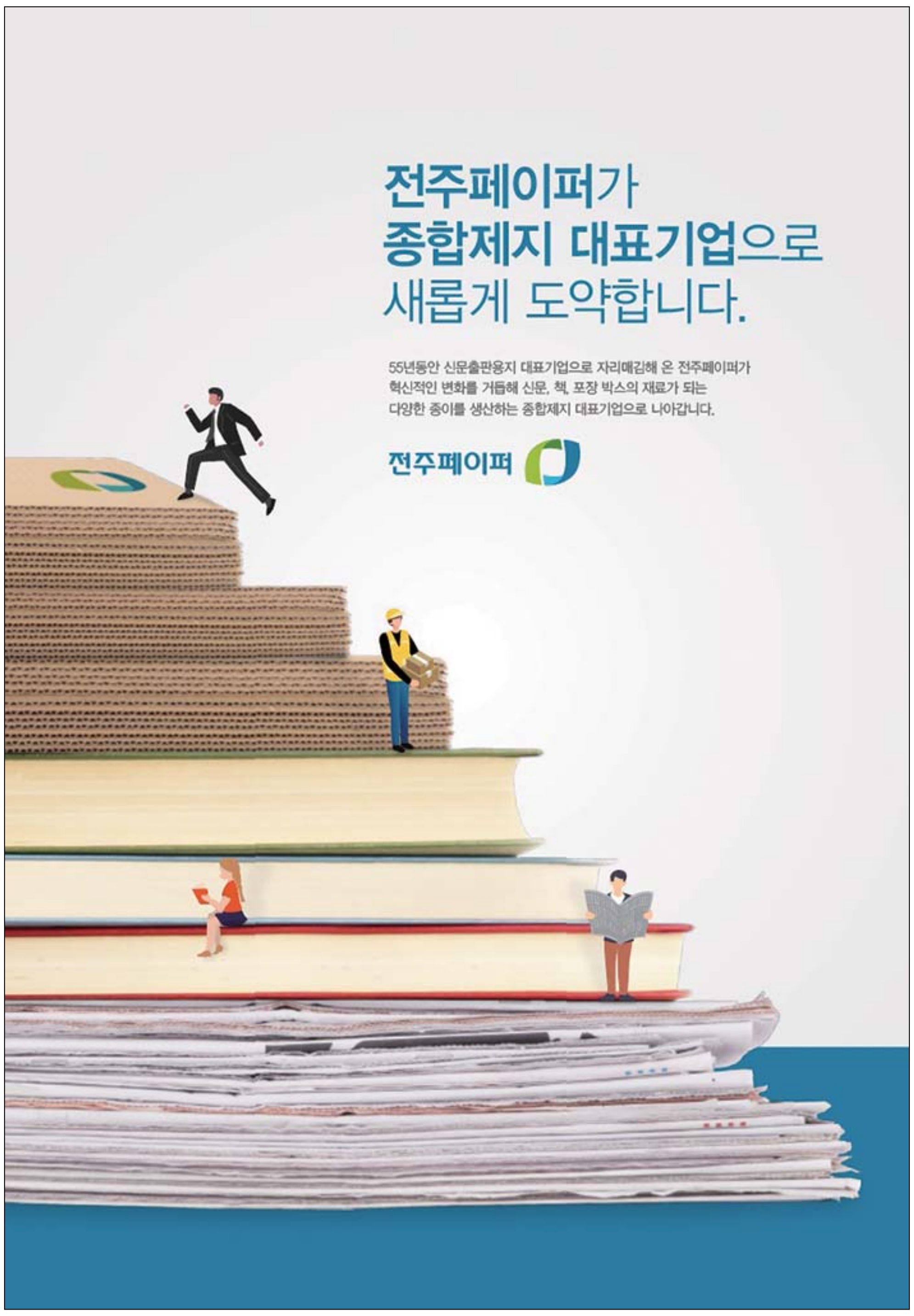
정부가 '세계 잼버리'에서 온열환자 발생을 대비해 폭염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의관 30명과 간호사 60명 등 의료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3일 오후 부안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이어지고 있는 폭염으로 4만3000여 명의 참가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국무조정실장과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 점검 회의를 실시했고 이날 오후 5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 주재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폭염 상황에 따라 영내 과정활동을 줄이고 영외 과정활동을 확대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또 군의관 30명과 간호사 60명 등 의료 인력을 추가 투입해 온열환자 발생에 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내의 새만금홀 대강당에 최대 150병상을 추가 설치해 환자 수용력을 높이며, 응급환자는 닥터헬기 6대를 이용해 전북대·원광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즉시 이송할 계획이다.

향후 잼버리클리닉(총 5개소) 시설에 냉방기 각 2대씩을 보강할 예정이고, 온열환자 휴식용 헌혈차 5대(1대당 10명 휴식)를 추가 투입해 휴식할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시스